

한 해를 맞으면서



양주승 포천신문 자문위원회 위원장

送舊迎新 예배를 드리면서 清雅하고 순결하게 乙酉年 을 보내기를 기도했습니다.

맑고 아름다운 꿈꾸면서도 뒤를 돌아보면 나의 눈과 귀와 입을 맑고 아름다움으로 다스리지 못했던 한해였습니다.

오늘이 있게 한 모든 이들에게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감사해야 할 일들을 찾아 기뻐하 자문위원회 위원장 기보다. 불평을 자주 했으며, 선의의 충고조차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 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용기가 부족했던가. 이웃에게 들어주고 배려하는 사람의 관심이 부족했습니 다.

다른 이의 허물을 감싸주고 이해하기보다 참을성 없는 몸짓과 언어로 상처를 주었으며, 때로는 지나치게 이기적 인 욕구로 주위 사람들과 불편함을 주지나 않았는지.

성경말씀에 "한 사람이면 피하졌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리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줄은 꼬면 꼬을수록 강해진다는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힘의 원리란 나눌수록 약해지며, 합하면 합할수록 강해 집니다. 포천신문 각 위원회는 우리 삼겹줄을 만들어 합차 게 떠오르는 병술년 한해를 만들어 봅시다.

이제 다시는 잡을 수 없는 한 해를 보내고 모든 이에게 고마운 마음으로 새해의 언덕을 넘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의 丙戌年 있어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으며, 날마다 밝은 우당

뜻있는 한해 되길 기원



윤이용 포천신문 운영위원장

포천신문 운영위원장 윤이용입니다. 다사다난했던 을유년을 뒤로하고 대망의 병술년의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 새아침을 맞이하여 힘찬 발걸음을 내디딤니다.

지금의 현실이 국제적으로 어려운 줄 알고는 있지만 묵묵히 인내심으로 견디는 우리 포천시민 여러분 정말로 존경스럽고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포천시의 기업인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로 기술경쟁력을 키워서 일자리를 창출시켜야지만 실물경제는 물론이고, 소비경제도 살아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포천시에 자리잡고 있는 포천신문이 있습니다. 이 또한 신속한 정보와 정론으로 정확한 뉴스를 신속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포천시민의 큰 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2005년 12월 15일 창간6주년 기념 행사가 대성황속에 성공적으로 마치고 된 것도, 포천 시민의 아낌없는 성원 속에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기관·사회단체장님들과 회원여러분이 몰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한 성과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신다면 최효열 발행인과 포천신문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각성하고 반성하여 포천시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상의하여 토론회를 통해서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병술년의 한해가 뜻 있는 한해가 되시길 빌면서 자연이 승주는 포천시에서 더욱더 발전하는 포천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포천 발전위해 화합과 노력



김종현 포천신문 조사위원장

병술년 새해를 맞아 가정에서 행운과 건강이 함께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16만명의 포천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구석의 좋은 일이나 나쁜 일, 빠짐없이 보도하는 포천신문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을유년에는 포천신문 조사위원회에서 발의한 365일 불우이웃 찾기가 개설되어 많은 분들의 참여와 호응 속에 2천여만원의 성금과 쌀등 각종 물품이 접수된 것이 가장 보람있는 일이었습니다.

연말에만 아깝게나마 불우이웃돕기를 하는 것이 보통인데, 포천신문에서 연중 실시하고 있는 "불우이웃이란 365"이 활성화되고 정착된다면, 포천의 불우이웃은 타지역보다 훈훈함을 더할 것입니다.

1997년부터 매년 쌀 20kg 100포대씩을 불우이웃을 위해 전달하고 있는 본인으로서의 우선 내 마음이 편하고 내 가정이 아이들을 비롯해 잘 지내고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또한 내 힘이 있는 한 더욱더 조사위원 회원들을 통해 더 발전해 나갈 수 있게 다짐해 봅니다.

가정에서도 혼자 힘으로만은 되지 않는 일이고 집사람이 무엇보다 같이 호응해 주어 보람이 있었던 게 다 집사람 덕택이라 생각이 듭니다.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포천도 살기가 좋아서 그런지 최근 타향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포천 토박이들은 이분들을 뒷세하지 말고 몰심양면으로 도우며 포천의 발전을 위해 화합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14개 읍·면·동 중 아직까지 몇개면이 조사위원회가 설립되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14개 읍·면·동에 조사위원회가 100%설립되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합시다.

밝고 아름다운 사회분위기 조성



임경순 주부명예기자단장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단이 창단되어 활동한지도 벌써 3년째를 맞이하는 새해 병술년의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포천신문 가족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주부명예기자단은 주부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포천사회가 능동적이고 활기찬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사 발굴을 물론 봉사활동에 주력하고 있는 포천신문 지원 기구입니다.

주부명예기자단은 2005년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 직접 현장에 나섰으며 감정을 담가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에 힘을 함께 해주신 주부명예기자단 여러분의 귀한 뜻이 포천사회를 아름답게 가꾸는데 이바지했다고 생각합니다.

병술년 새해에도 주부명예기자단의 눈부신 활동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주부명예기자단을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신문은 어둡고 왜곡된 사실을 보도하는 것보다는 아름답고 귀감이 되는 의미 있는 일들을 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주부명예기자단도 포천신문의 이같은 취재방식에 따라 포천사회를 밝고 아름답게 가꾸는데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가정에 축하 할 일, 지역사회가 자랑할 일, 도와주어야 할 일, 도움을 받아야 할 일 등을 알차게 보도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주부명예기자단 여러분의 적극적인 활동과 포천시민의 참여가 이루어지는 2006년을 기대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잊었던 사람들에게 전화해 보세요"



양근원 학생명예기자단장

새해입니다. 새달력엔 1월 1일이 표시되어 있 더군요. 2006년 모든 것이 새롭고 즐거운 새해입니다.

누군가에게 "새해가 가시기전에 꼭 해야 할 일이 뭐가 있을까?" 하는 질문을 받고 당황한 적이 있습니다.

새해를 맞을 준비만 되어 있었지, 2005년을 보내는데는 익숙지 않았던 겁니다. 그 순간, "아~ 잊혀진 친구에게 전화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연락을 안하고 지낸 친구인데...", "전화번호가 그대로 있기는 할까?" 하는 생각이 순식간에 스쳐갔습니다.

이런 저런 생각 끝에 전화통화를 했고, 인부를 물을수록, 무언가 따스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유쾌한 목소리로 "놀러 좀 와라!" 하는 친구의 익센 발음을 듣는 순간 마음이 따뜻해 진 건 무엇보다도 아닐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휴대폰 등 기술은 눈부시게 발달하고, 더욱 연락하기 편해진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보를 치고, 편지를 쓰던 시절보다 서로 연락하며 지내는 시간은 적어지고 있습니다.

온고지신(溫故知新)이란 말이 있습니다. 새로운 것도 좋지만,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연락해보세요.

즐거운 웃음과 행복, 그리고 오랫동안 함께한 친구를 다시 찾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더욱 좋게 만드는 즐거운 2006년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학생 자아실현에 매진



이광호 포천일고등학교 교장

다사다난했던 乙酉年 한 해를 보내며 학생 자녀의 뒷바라지를 위해 고생하신 학부모님과 학교 교육에 많은 관심으로 몰심양면 지원해 주신 지역 사회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 덕분에 지난 한 해 동안 본교는 <제12회 청소년 민속 예술제> 대통령상, <제3회 YMCA 청소년 벤처 모의창업대회>산업부장관상 등을 수상하며 전국에 본교와 우리 포천 지역을 널리 알릴 수 있었습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丙戌年 새해에 본교는 동문, 재학생, 교직원, 학부모 여러분의 요망에 의하여 '포천일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반세기의 역사를 담아내며 새롭게 변화하는 새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새로운 이름으로 거듭나는 본교는 '성실'의 교훈 아래 敬上 愛下, 學行一致, 教學相長의 교육 목표를 추구하고 포천 지역에서 가장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가진 학교답게 지역 사회의 요구와 학생 자아의 충실한 실현을 위한 노력에 더욱 매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새해에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서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하며, 走馬加鞭의 마음으로 시작하는 본교의 새로운 출발을 사랑과 관심으로 격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늘 正論直筆로써 지역 사회의 바른 언론문화를 선도해 나가는 <포천신문>에 강건한 붓의 힘이 늘 충만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의 손길 필요한 곳에 봉사



박형환 포천로터리클럽 회장

대망의 2006년 병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병술년 새해에는 모든 하시는 일들이 모두 성취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그동안 국장님을 비롯한 많은 기 자님들의 탐과 노력으로 인해 경기 북부지역의 많은 기사와 선도의 핵심적인 신문으로 거듭됨을 감사와 축하드립니다. 포천 지역의 어려운 곳을 다니며 도움의 손길을 주려 많은 힘을 쓰고 있지만, 미처 다하지 못한 곳을 2006년도에는 발굴하여 더 많은 도움의 손길을 펼쳐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 클럽은 매달 어려움에 처한 곳을 방문하여 묵묵 및 청소·식사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동남고등학교 인터랙트 클럽과 함께 하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 클럽이 창립 89년부터 포천 관내 대학생 및 동남고 장학생에게 장학사업을 실시하여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클럽이 후원하고 있는 동남고 인터랙트 클럽 회원들은 매달 포천 관내 시설을 다니며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제교류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일본 2710지구 히로시마 지역을 방문하여 그 나라의 풍속을 체험하며 홈스테이를 하고 있으며, 일본의 인터랙트 회원들이 한국을 방문하여 동남고 인터랙트 회원의 자택을 방문하여 홈스테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천신문, 포천의료원 포카회와 함께 하는 외국인 근로자 봉사활동을 매년 개최하여 어려움을 처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한미담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많은 봉사사업으로 낙후되어 있는 곳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봉사단체가 되었으며, 끝으로 모든 하시는 일과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인정받는 청년단체가 될 것



윤충식 JCI KOREA-포천 회장

존경하는 포천시민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을유년 한 해를 보내고 희망찬 병술년을 맞이했습니다. 매년 한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감회는 언제나 새롭고 또 아쉬움이 남습니다.

새해엔 우리 포천시와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고 세우신 원대한 포부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지난 한해 JCI KOREA-포천은 포천시 신년교례회, JCI KOREA-포천 회장기배 초등학교 축구대회, 우수학생 장학사업, 독거노인 등 불우이웃과 소외된 시민들을 위한 각종 봉사활동 등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 왔습니다. 또한 아·태대회, 세계대회참가와 국제 자매 JCI인 JCI TAIWAN-씨즈와의 교류로 민간외교의 새 장을 열 어왔습니다.

대망의 2006년 병술년에는 경기도 31개 시·군내의 40개 품의 JC가속이 한 자리에 모여 화합과 축제의 장을 여는 JCI KOREA-경기지구 회원대회를 포천시에서 유치하여 포 천시의 아름다움과 포천시민의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 고, 지역 특산물 홍보 판매와 떡거리장터 운영 등으로 지역경 제 발전과 포천시 홍보에 기여 하고자 합니다.

새해엔 JC의 3대 이념인 지도역량개발, 지역사회개발, 국제우호증진을 더욱 확실히 실천하고 재능있는 젊은 인재를 발굴,육성하여 이사회에 꼭 필요한 청년리더를 양성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민 과 함께하는 범 시민운동을 바탕으로 자율적 참여, 자발적 실천, 자의적 인식 속에 포천시 발전에 적극 기여하고 또 인정받는 청년단체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병술년 새해 시민 여러분들에게 행복한 일만 가 득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비닐특수인쇄 · 가공전문 비닐포장지 제조판매 풍산그라비아 송우점

謹賀新年

비닐포장지에 관한 모든 것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보유시설

- 인쇄 8색기 : 2대
- 라미 레이팅 : 1대
- 드라이 라미 : 1대
- 특수 M방기 : 2대
- 지퍼 삼방기 : 3대
- 스투타 : 2대
- 기능성 가공기 보유



풍산그라비아는? 전자동 제조설비를 갖춘 전문업체

생산품목

- 나이론 진공 포장지
- 잠곡 봉투
- 야채 봉투
- 육가공
- 떡·면류
- 차·선식류

풍산 그라비아 송우점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282-2 · 본사/공장 : 536-3531 · 송우점 : 543-3531